

# 기독교상담에서의 이야기 해석

김 수 연 교수  
(Ph.D.,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야기' 라는 모티브를 이용하여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내담자의 이야기는 상담자에게는 공감 및 해석의 과제를 부여한다. 상담의 목표와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의 이야기는 치유와 변화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이해지평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이야기이다. 본 연구는 먼저 내담자의 주관적 해석이 담긴 이야기는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를 통하여 교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가 기독교적 해석에 갖는 유용성은, 내담자가 자기초월을 위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인생의 막힌 답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심리학적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신학적 장비, 곧 구원론의 틀 안에서 기독교론(칭의)과 성령론(성화)에 기초한 인간론의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독교상담의 목표이자 결과로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내담자의 인생이야기는 구속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속이야기로 만들어지기 위한 해석과정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구속이야기의 특성을 성경이야기의 구조 및 주제에 기초하여 기술하였다.

**중심단어 :** 해석학적 우회, 심리학적 이론의 교정렌즈, 환원주의, 신학적 인간론, 구속 이야기

## I. 여는 글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큰일이 일어난다. 이 만남이라는 관계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의 동기나 문제에 대한 호소가 시초에 거론된다. 이어서 이를 촉발시킨 최근사건 및 그것과 연관된 감정이나 생각, 연상되는 과거경험까지 찾아 들어가는 탐색이 진행된다. 기나긴 탐색과정의 결과로, 내담자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data), 곧 내담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 살아온 인생 경험에 대한 이야기, 또는 중요한 사람들(significant others)에 대한 이야기들이 얻어진다.

상담 중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첫째, 이 이야기들은 폐쇄된 텍스트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상담에 거는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 혹은, 내담자가 상담하기 위해 내어 놓는 이야기는 상담자와의 관계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의 이야기는 상호작용의 연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텍스트로서 관계의 산물이다.<sup>1)</sup>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서 상담자는 상담과정의 진행도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속성을 가늠한다. 둘째, 내담자의 이야기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정 실재하는 것으로 믿고 바라는지 보여준다. 내담자는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정체성 및 세계관의 실체를 자각하고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기도 한다. 셋째, 내담자의 자기탐색 이야기는 짜임새가 있는 온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파편화와 모순, 왜곡 등으로 불가해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내담자의 파편화된 이야기는 무의식적인 방어(부정, 합리화, 투사 등)나 자기이해의 지평 내지는 한계를 반영한다. 또는 살아온 삶 자체가 상실이나 실패, 이별 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단절로서 경험되고 있을 수도 있으며, 핵심주제나 의미가 결여된 허무로서 경험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sup>2)</sup>

내담자의 이야기를 상담 과정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먼저 내담자의 이야기는 상담자에게는 공감적 수용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내담자의 인격적 실체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상담목표와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의 이야기는 치유와 변화의 거점이 되기도 하는 바, 내담자의 이야기는 상담자

의 새로운 안목에 의해서 다시금 해석되어야 할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상담자에 의하여 새로운 이해지평(삶의 주제)이 도입될 수도 있다. 또는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 비성경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인과관계 해석을 드러내는 내담자 이야기는 보수공사를 통하여 재건축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sup>3)</sup>

새로운 이야기가 재건축되기까지, 상담과정은 내담자에게는 지금까지 품어 왔던 자기이야기가 도전을 받는 고통의 과정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헛된 거짓의 놀림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내담자가 상담자의 공감어린 직면과 해석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자기이야기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상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준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4)</sup>

그렇다면 내담자의 이야기는 어떤 근거에서 무슨 목적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는 ‘눈’이 들어 있다. 이 눈은 자기를 보는 눈, 타인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이 눈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늘 새롭게 떠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눈은 몸의 등불로써 ‘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 (눅11:33-36)이기 때문이다. 자기 속의 눈을 밝히는 과제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35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내담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해석의 대변자로 서있는 상담자에게는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상담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어떤 해석적 안목이 요구되는가? 기독교상담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는 일반 심리상담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가? 이 두 종류의 새로운 이야기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가, 만약 협조적 관계라면, 어떤 순위로 배열되어야 하는가? 학문간 대화가 가능하다면, 인생이야기 해석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과 심리학의 연결축은 어떤 식으로 놓여 질 수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이용하여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기독교상담에서의 신학적 해석은 먼저 경험적 심리학적 해석을 거칠 때

가장 효과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내담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심리학적 해석을 거침으로써 인생이야기가 어떻게 달리 빛 어지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심리학적 해석에 의해 밝혀진 인생이야기가 기독교적 해석을 위하여 어떤 접촉점을 제공해 주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된 방식으로 기독교 신학과 심리학사이의 학문간 통합 내지는 대화의 단서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나아가, 내담자의 인생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 기독교적 해석은 어떤 신학적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 이후의 인생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예시함으로써, 기독교상담만의 독특한 해석지평을 열어보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해석학적 우회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상담을 재정립하고자 했던 Charles V. Gerkin에 의하면,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는, 과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생이야기가 해석되느냐 하는 것이다. 경험된 인생사들이 영적으로 해석된 의미를 부여받을 때야 비로소 영혼의 삶에 눈뜨게 된다고 보고 있다.<sup>5)</sup>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Gerkin은 딜타이(W. Dilthey)의 ‘해석학적 우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기독교적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신학적 언어들과 성경 이야기들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학적 해석의 길을 널리 여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sup>6)</sup>

해석학적 우회의 타당성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지니는 정체의 이중성에서 기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이중적 정체성

이란 한편으로는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역사적 경험적 존재인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아래서 사는 초월적 종말론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초월적 종말론적 존재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완성을 보증 받은 존재요, 완성되기까지 은혜 가운데 끊임없는 자기초월의 순례에로 부름 받은 존재를 뜻한다.<sup>7)</sup>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경험적인 존재라는 명제는 개념상 서로 모순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은 역사와 경험 속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초월적 은혜도 인간의 마음이 반응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초월과 경험의 역설은 실재적(real)이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경험과 초월의 역설적 실재(reality)는 기독교적 해석이 경험적 심리학적 해석을 배제하지 못하며, 나아가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심리학적 해석은 경험적 역사적 실존의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며 명료화한다. 기독교적 해석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는, 바로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를 통해서 명료화된 구체적 맥락을 통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가장 적절한 때는 구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이 이해되는 때이다. 이를 위해 심리학적 해석은 간과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제되어야 한다.

상담에서 심리학적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위한 일종의 기경(발갈이) 작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씨가 뿌려질 토양이 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과 정황을 정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로를 돌아감으로써 내담자의 주관적 자기해석은 경험적 자료들을 매개로 좀 더 합리적으로 교정되고, 지나친 왜곡이나 굴곡은 펴지고 평평해지며, 파편화된 에피소드들은 연결고리에 꿰어지게 된다. 나아가, 심리학적 이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개념의 렌즈를 통하여 인생여정을 들여다 본 바, 경험자료들은 풍성하게 탐색되며, 인생이야기는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된다. 이러한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로가 기독교적 해석에 갖는 유용성은, 내담자가 어느 지점에서 자기초월을 위해 기독교적 해석, 곧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준다는 것이다. 즉 심리학적 해석은

자기 인생의 '막힌 담'의 소재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복음제시의 접촉점을 제공한다.

요한복음 4장 1-26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여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영생의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에, 여인은 영생의 물을 필요로 하는 주관적 이유(4:15)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영생의 물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삶의 정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지, 그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현재의 힘든(뜨거운 대낮에 남의 눈에 안 띄게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삶의 정황을 만든 더 근본적인 문제를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으로 직면케 하신다. 이에 더 나아가 이 여인의 삶의 방향의 근저에 있는 실존적인 공허, 곧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예배장소를 소재로 제기된다(4:20). 이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거듭난 정체성'의 관점 - 영이신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의 자녀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4:21-24)-에서 이 여인의 삶의 의미가 새로이 조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사례를 각 인생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접근방식의 본이라고 전제할 때, 먼저 삶의 정황분석을 통하여 인생의 막힌 담을 접촉점으로 기독교적 해석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삶의 정황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심리적 해석을 경유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기독교적 언어와 성경적 이미지들은 내담자의 인생이야기를 포착하는 일종의 '땃'과 같이 작용하여, 하나님 말씀의 '자기화'를 이루는 모멘트를 제공한다.

## 2. 심리학적 해석

### 1) 내담자의 주관적 해석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이 마치 사진기의 앵글처럼 들어 있다. 이 앵글은 예를 들면,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경험한 주변인물과 외적 상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만을 엮어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내담자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나타난 관점은 인생에 대한 태도(내향, 외향) 및 자기표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자기 인생 이야기 속에 언급되는 상황, 사건, 관계에 대한 경험들(절정경험, 바닥경험, 변화경험, 정체위기 경험, 친밀관계 경험, 재난이나 죽음의 한계경험, 혹은 이러한 경험들의 부재 등)은 현재의 자신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드러낸다. 그리하여 전체이야기의 구성(plot)은 그 인과적 관계를 암암리에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여기에는 인생을 스스로 납득 수용할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주관적 이론'을 작동시키고 있음을 탐색해 낼 수 있다.<sup>8)</sup>

이 외에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을 엮어 내는 데는 반복되는 주제들(자율과 성취, 우월과 경쟁, 사랑과 인정, 친밀, 굴종, 배신, 희생, 공허, 수치 등)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 이 주제들은 내담자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로서 무엇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왔는지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인생이야기 전체를 묘사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한 상징이나 비유(순례, 연단, 마리아, 줄다리기, 그림의 띠, 신데렐라, 놀부와 흥부, 콩쥐와 팥쥐…), 어조(회한, 긍정, 초연 등)는 내적 세계의 특성을 가늠하게 한다.

내담자의 이야기의 내용적 및 형식적 특징들, 곧 관점, 구성, 주제, 상징이나 비유, 어조 등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이는 이야기라는 장르 자체의 존재이유에서 말미암는 바, 자신의 인생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 및 인생에 대하여 갖고 있는 주관적 해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sup>9)</sup>

## 2) 심리학적 해석의 교정렌즈

심리학적 해석은 내담자의 주관적 해석에 있어서 왜곡이나 굴곡을 평평하게 다듬어 좀 더 합리적으로 교정하고, 과편화된 에피소드들을 내적 역동이나 성장의 원리에 따라 연결고리로 엮는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심리학적 이론 내에 소장된 다양한 구성개념들(constructs)이 주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먼저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서 심리학적 해석의 교정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부분은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내담자의 주관적 이론이다. 즉, 과거의 충격적 사건이나 주변 사람의 어떤 유해한 특성이나 행동, 그로 인한 내적 상처가 현재 자신의 성격이나 문제의 '직접원인'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결정적인 직접원인이라면 그런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같은 결과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왜 하필 내담자에게만 문제를 일으켰으며, 같은 상황에서 함께 내적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담자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 때, 인과관계 설명에 있어서 내적인 매개과정을 들여다보는 개념적 렌즈(가설적 구성개념, hypothetical construct)를 심리학적 이론들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필요해진다.

### (1) 인지치료적 관점에서의 해석

#### ① 교정렌즈의 기능

인지치료적 ABC의 개념들은 인과관계 설명에 있어서 내적인 매개과정 자체를 원인으로 보도록 도운다.<sup>10)</sup> 내적인 매개과정을 보는 인지치료적 개념으로는 상황(A)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반응(C)의 기저에는 자동화된 생각이나 이미지, 비합리적 사고과정의 유형, 그리고 자동화된 생각과 연결된 인생규칙(if-then)이나 핵심신념 혹은 도식(schema)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도식들은 예를 들면, 수용이나 인정, 거절, 유기, 불신, 실패나 결함, 수치, 통제, 특권, 자율, 복종, 희생, 억제, 완벽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대나 믿음이다. 특히 부적응적인 도식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비합리적 사

고과정(과잉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재앙화, 선택적 여과, 감정적 추론, 독심술, 자기중심적 개인화)을 유발한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심상이나 생각이 떠오르게 되며 그에 따른 감정이 수반된다. 도식이 부정적일수록 상황해석은 비합리적이 되며 그에 따른 감정 또한 부적절하게 된다.<sup>11)</sup> 이러한 인지치료적 개념들은 내담자의 인생이야기를 해석할 때 일련의 이야기된 상황들 속에서 내담자의 마음을 건드린 핵심주제를 찾아내는데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된다.

ABC들에 대한 교육 및 자동화된 생각, 인생규칙, 핵심믿음, 도식 및 사고과정의 유형 등의 개념적 렌즈에 의한 이야기 해석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도록 도와준다. 즉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뒷에 사로잡히게 되는 원인으로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보게 해준다. 또한 상황평가에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는 뿌리 깊은 생각(핵심믿음, 도식)의 내용이 명료화됨으로써 이것이 어떤 특정상황에 대한 지각을 왜곡시키며 그에 따른 반응을 하게 하는지 그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인지치료적 교정렌즈를 통하여 재해석된 인생이야기는 따라서 더 이상 운명이나 타인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대신 자신의 몫을 알고 자신의 맹점을 발견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자동화된 사고내용 및 과정이 논박을 통하여 수정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능동적 통제권이 확보된 이야기가 된다. 또한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도 핵심믿음(도식)의 주제를 중심으로 일련의 사건들 간의 연결고리가 훨씬 짜임새 있게 조직화된 이야기가 된다. 나아가, 핵심믿음이나 도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실용적으로) 수정함으로써, 대안적인 '미래의 이야기'<sup>12)</sup>를 만들 수도 있다.

② 해석의 막힌 담

상황해석에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핵심믿음의 가치는 합리성에 의해 판단된다. 합리성은 논리성, 사실에 의한 검증가능성, 현실적응에 유리한 융통성과 실용성을 지닐 때 확보된다. 따라서 어떤 믿음이 경험적 사실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며, 동시에 적응에 유용하다면, 그것은 합리적이며 따라서 보

유할 만하다. 현실에의 적응을 통해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용된다.<sup>13)</sup> 따라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며, 핵심 믿음으로 인간이 마땅히 품고 그에 의지해 살아야 할 궁극적 진리는 무엇인지 가리켜 줄 상위기준이 없다.

## (2) 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해석

### ① 교정렌즈의 기능

내적인 매개과정을 보는 일에 있어서 정신분석이론체계는 ‘중첩된 결정인’, 곧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탐색하는데 유리하다.<sup>14)</sup> 다양한 원인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다원적 모델로서 정신분석이론체계가 제시하는 설명의 개념들은 다음 4가지 차원에서 내적 매개과정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4가지 차원이란 성격구조, 발달과정, 자아방어, 관계양상 등의 차원이다. 첫째, 성격구조의 차원에서 고전적 정신분석학에서의 초자아 개념은 자아심리학 전통에서는 자존감(정체감)의 문제로, 자기심리학의 전통에서는 자기애(narcissism)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내적 중심’으로서의 자기/자존감의 원천 및 안정성, 그 유지근거(내적 가치관, 동일시 대상), 상처받은 자존감의 회복력, 자기표상에 나타난 포부수준의 웅대성(grandiosity) 및 현실성, 자기표상의 통합정도, 일관성 및 연속감 등을 중심으로 내담자를 이해한다. 둘째, 발달과정의 차원에서는 성장과정을 탐색하는 바, 외부의 영향을 수용 해석하고 ‘조장’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수준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촉발된 유사한 초기발달단계(고착지점)로 되돌아가(퇴행) 그 시기의 미숙한 대처방식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미해결된 발달주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상황은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며 상이하게 해석된다. 각 단계별 발달주제의 심리적 특성은 성격조직을 보는 구성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를 열거해 보면, 어머니와의 심리적 공생과 분리 단계에는 ‘나인 것’과 ‘나 아닌 것’의 혼동 및 구별, 분리-개별화 단계에는 모아(母兒)관계에 있어서 의지의 대결로 인한 ‘착한 나’와 ‘나쁜 나’, 순종과 반항, 청결과 더러움, 낱쌈과 꾸물거림, 의

지, 자율과 수치, 주도권, 경쟁, 탐욕 또는 목표, 유아적 무력감과 공격적인 전능감, 죄책감의 특성 등이 있다. 개별화 단계에서는 대상항상성 및 안정된 자기감에 기초하여 자기와 타인의 내적 복잡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 배려에 기초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이 성격발달을 조망하는 주요한 주제가 된다. 특히 E. Erikson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이론<sup>15)</sup>에서는 삶의 단계별 인생과제(신뢰, 자율, 주도, 근면, 정체 형성, 친밀과 연합, 세대배려, 죽음 앞에서의 인격통합)의 해결을 통해 함양된 인격적 힘이자 덕목들(희망, 의지, 목표, 실력, 충성, 사랑, 지혜) 및 미해결로 인한 병리들(위축, 이상승배, 강박, 율법주의, 억제, 도덕주의, 타성, 형식주의, 명분, 전체주의, 배타주의, 특권의식, 권위주의, 독선 등)이 제시되는 바, 이는 인생이야기의 핵심줄거리를 찾아내는데 주요한 해석적 역할을 한다. 발달이론을 정신장애에 결정론적으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이를 발달적인 정체(arrest)와 관련하여 현재의 무의식적인 갈등과 함께 고려할 때 정신장애의 병리를 설명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무의식적인 갈등은 인간의 직면하지 않으려는 경향성 때문에 상징적 왜곡을 거쳐 증상으로 표출된다는 것이 정신분석적 병리론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왜곡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셋째, 자아방어의 설명차원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감정의 격리(isolation)와 합리화 또는 이지화(intellectualization)나 취소는 강박장애를, 내사 및 내향화는 우울 및 피학심리를, 퇴행과 전환 및 신체화는 신체형 장애를, 부인은 조증의 지표를 나타낸다. 자아방어는 갈등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적 갑옷(character armor)으로써 성격구조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분리(splitting)나 투사적 동일시 등은 경계선 성격구조를,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자기애적 성격구조를, 공상으로의 철수는 분열성 성격구조를, 반동형성과 투사는 편집증적 성격구조를, 억압과 퇴행 전환 및 행동화는 연극성 성격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해석개념을 제시한다. 끝으로 정신분석이론은 이러한 방어가 넷째, 대인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관계의 주제들을 보는 다양한 렌즈를 제공한다. ‘누구를 닮고자하는가’의 동일시 문제나 ‘누구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하는

가'의 애착의 관계양상은 내담자의 "내면화된 대상관계"를 나타낸다. 내면화된 대상관계는 내담자의 이야기에서는 반복되는 각본이나 드라마로 등장하며,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전이-역전이의 관계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이에서 현저한 관계양상(예: 이분법적 타인지각, 성애화(sexualization), 이상화 및 평가절하)이나 현저히 결여된 관계양상(감정의 부재, 공감수용의 결여)은 반복되는 대인관계 주제를 통찰하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반복되는 대인관계 주제의 발달적 근원이나 동기, 방어기능 및 강화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내담자의 파편화된 이야기를 그 심층에서 꿰뚫어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해석해 내는 데 기여한다.

이상 기술한 성격구조, 발달과정, 자아방어, 관계양상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정신분석적 개념은 인간이해 및 인생이야기 해석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피상적인 해석을 넘어 심층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시력으로 교정해 준다. 이러한 시력교정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근거에는 언제나 정신분석 이론체계가 지향하는 바, 인간의 내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기준들이 전제되고 있다. 정신분석의 목표에 대하여 W. Mertens가 요약한 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먼저 첫째, 성격구조에 있어서 자기 및 자존감의 영역에서는,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외부의 영향력에 조종당한다는 느낌 극복), 외부의 인정이나 거절에 개의치 않는 자기가치감 유지, 자기감의 통일성, 연속성, 일관성 유지를 들고 있다. 둘째, 발달영역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주제로는, 분리와 개별화, 혹독한 초자아(자아이상, 양심)극복, 성장지향의 공격성, 성정체감 형성을 들고 있다. 셋째, 자아방어의 영역에서의 성장목표는 현실수용으로 드러나는 바, 이는 전지전능공상(=완벽주의) 감소, 통제에 대한 과대한 욕구극복, 자신의 한계와 인생의 무상함 수용, 상실에 대한 애도능력, 양가감정에 대한 인내, 삶의 조건에서 말미암는 피치 못할 갈등을 수용, 감내하여 지금까지의 경험에 있어서 생동감과 깊이를 더하는 것을 뜻한다. 넷째,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내향과 외향의 균형, 가족신화 탈피, 개성의 상실 없이 집단소속감의 유지, 자아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공감이나 일시적 동일시 및 전인적 헌신, 안정적 관계 속에서 친밀감과 허물없음의 향유, 아군과 적군으로의 편

가름 없이 삼각관계를 인내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이상과 같은 정신분석의 목표는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할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를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내기 위해, 정신분석의 이론적 개념들은 내담자의 기억 속에 묻힌 이야기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파편화되고 불가해한 이야기를 심층적이며 다원적으로 독해하는 법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적 교정렌즈에 의해 다시 구성된 이야기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불가해하며 파편화된 이야기를 이해 가능한, 연결된 이야기로 만들어 준다.

② 해석의 막힌 담

해석이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나 형제 등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성장의 과제를 자칫 환경론적이며 인과론적인 결정론의 틀 속에서 조망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대한 경계로, 고통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선택이나 책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방어기제에 대한 면밀하고 심층적 해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의한 통찰이 과연 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동이 자기에게서 말미암을 때, 과연 인간이 자신을 얼마나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소망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정신분석이 인생의 고통이 갖는 심리적 성숙이라는 목적론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 곧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절대적 가치를 보장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전망이 없는, 정신분석적 순례는 목적지 없이 메마른 광야를 떠도는 것과 같아 보인다.

(3) 실존 인본주의적 해석

① 교정렌즈의 기능

Carl. Rogers의 실존인본주의적 해석이 지향하는 바는 참자기(real self)를 자각하는 것이다.<sup>17)</sup> 이 참자기는 대개의 경우 억압되는 바, 그 원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positive regard)을 받으려는 동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자기도 모르게 내재화된 가치조건(conditions of worth)에 길들여 진 결과이다. 가치조건에 부합되는 자기만을 수용하려는 결과 참자기는 억압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왜곡된다. 이처럼 왜곡된 거짓 자아는 가치조건에 맞게 부풀려진 자아, 곧 이상화된 자아(idealized self)이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치조건에 맞게 만들어진 자기상에 매여 있는 한, 결코 실존적인 자아에 이르지 못하며 참된 인간됨의 궁극적 가치(진, 선, 미, 의, 의미, 무위, 유희성 등)를 실현하는 경지, 곧 자아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에 의해 가치조건을 사슬에서 해방되어 거짓자아의 가면을 벗게 됨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생이야기의 주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바, 전생애를 통하여 추구된 가치는 얼마나 타인의 인정을 얻어내는 조건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하는가, 혹은 참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해석의 막힌 담

참자기의 발견 및 실현에 관건이 되는 무조건적 수용이 과연 한 인간 상담자에 의해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설령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은 과연 변화의 필요충분조건인가? 세 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는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셨을 때조차도,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 했다. 과연 변화의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무조건적 수용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참자아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현상학적 인간이해에 기초한 바, Carl Rogers는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혹시 느껴지는 그대로, 욕구하는 그대로의 인간상이 그 전부인 것은 아닐까. 이 별거벗은 인간의 모습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의 참모습일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가?

자아실현이라는 인간존재의 목표 안에 모든 진리와 선이 잠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있는 그대로의 참자아를 경험하기만 하면 절로 알게 되는 것일까? 진리와 선이 단지 참자아를 경험하는 것에 그 기

원을 두고 있다면, 그 진리와 선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뿐이며 결코 궁극적 가치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로써 심리학이라는 경험과학의 한계가 드러나는 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도덕적 가치 및 나아가 궁극적 의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4)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 종합

심리학적 이론들의 멀티렌즈에 의한 시력교정의 효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치료적 해석을 통하여 인생에서 겪은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내적인 매개과정(평가 및 해석)자체가 인생이야기 속에 원인으로 등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내적인 사고과정은 자동화된 생각이나 심상, 비합리적 추론과정, 인생규칙 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또는 이야기의 주동기(leitmotif)는 핵심신념이나 도식을 빌어 인생주제로 요약되기도 한다. 예컨대, 수용이나 인정, 거절, 유기, 불신, 실패, 결함, 수치, 통제, 특권, 자율, 복종, 희생, 억제, 완벽 등의 인생주제는 정신분석적인 해석의 틀을 거치면서 그 발달과정, 성격구조, 방어기제, 대인관계의 차원에서 다원적으로 조명되어진다. 끝으로 실존인본주의의 해석을 거치면서 인생이야기는 실존적 자각의 관점에서 참된 인간됨의 궁극적 가치가 얼마나 절실하게 추구되어 왔는지, 또는 그 추구가 어떻게 억압되어 왔는지 평가된다. 이러한 종합적 해석을 통하여 새롭게 재구성된 인생이야기는, 그것을 해석하는데 사용된 심리학적 이론의 한계와 맞물려, 기독교적 해석을 통해서만 그 막힌 담을 넘어 이해의 지평이 확장된다.

3. 심리학적 해석과 기독교적 해석의 접촉점

1) 심리학적 환원주의 위험

심리학적 해석과 기독교적 해석의 접촉점에 대한 탐색은 고도의 균형이 요구되는 예민한 작업이다. 균형을 잃을 경우, 자칫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빠지게 된다. 예컨대, 인생 이야기의 주제를 자아실현이나 내적 대상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심리학적 환원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일괄 죄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신학적 환원주의에 빠질 수 있다. 환원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설명력이 현저히 약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설명방법이다. 특히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로를 경유할 때, 심리학화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면, 죄라고 하는 영적 문제가 발달장애나 자아실현의 저해로 여겨질 수도 있다. 또는 은혜의 초월적 요소가 간과된 채, 무조건적 수용이나 공감이라는 심리적 경험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가 회개의 결단을 약화시키고 끊임없는 자기분석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자기변명의 구실이 될 때, 심리학적 환원주의의 피해는 극심하다 하겠다.

## 2) 심리학화 방지의 보루: 신학적 인간론

기독교상담에서 인생이야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심리학화를 방지하는 보루는 신학적 입장을 명료화하고 견지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인 해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인생이야기의 기독교적 해석을 위한 신학으로 Danie? J. Louw는 구원론의 기본 축 위에서 기독교적(칭의) 및 성령론(성화)과 연결된 인간론의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sup>18)</sup> 성령은 변화된 새 생명이 일상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도우신다는 점에서, Louw에게 있어서 성령론은 은혜의 심리학이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사람의 초월적 본질의 핵심이다. 은혜가 새사람의 초월적 본질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것이 인간에게 연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의 반응, 곧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은혜의 심리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은혜의 효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성변수들(신뢰와 소망, 자율과 회개, 근면성과 견인, 자아정체감과 겸손, 자아통합과 자비 등<sup>19)</sup>)은 성령론을 통해서 그 신학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강조되던 인간의 잠재가능성의 실현은 은혜의 심리학 내에서는 인간 혼자 힘으로, 자율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주도하에 풍성케 하시고 능력주심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인간론 설계에 있어서 성령론이 갖는 의미는,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과 신앙을 이해하는 핵심 인식기관으로 보게 하는 바, 은혜의 선물의 관점에서 성격특성들(사랑, 덕 세움, 화평케 함, 온유함, 이타성, 인내, 관용, 겸손,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Louw가 강조하는 것은, 인격에 작용하는 성령의 기원 및 효력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기초만이 심리학적 해석이 환원주의로 흐르는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0)</sup>

본 연구에서는 인생이야기에 대한 경험적 차원에서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를 전제하지만, 이는 기독교적 해석을 위한 접착점을 찾기 위한 방편일 뿐, 결코 심리학적 해석에 머무를 수 없으며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간을 보는 신학적 관점에서 말미암는다. 경험적 심리학적 접근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드러내 주지 않는다. 고통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한계상황의 경험조차도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나 목적 및 하나님에 대하여 조명해 주지 않는다. 신학적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존재는 다른 인간이나 동물과의 비교로도 정의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구체적 만남, 곧 '믿음'으로만 정의된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기원이 있다. 즉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셨느냐가 인간존재를 정의함에 있어 관건이 된다. 이 부르심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며, 자신의 존재의미와 궁극적 목적을 깨닫게 된다. 이 점에서 인간이 참자기를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은 계시적인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알려주셔야만 알아지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여된 운명(구원과 부활생명)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만 인간존재의 파편성과 불가해성 및 우연성은 극복된다. 여기서 인간의 잠재가능성은 자기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에 책임과 순종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해석의 역할은 심리학적 해석의 막힌 답을 넘어 계시된 복음에 접촉하도록 하는데 있다.

### 3) 심리학적 해석에서 기독교적 해석으로의 추이(推移)

심리학적 해석에서 기독교적 해석으로의 추이(transition)는 심리학적 해석으로 다듬어진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던짐으로써 일어난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심리학적 이야기는 비로소 영혼에 대한 구속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기독교적 해석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물음으로 시작되는 기독교적 해석으로의 추이과정을 Charles V. Gerkin은 해석학적 중간 공간(transitional space)이라고 부르고 있다.<sup>21)</sup> 이 중간공간은 인간이 세워놓은 현실과 하나님이 가져오시려는 새로운 현실 사이의 틈새공간을 가리킨다. 이 틈새에서 인간은 초월적 은혜를 바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원하며 인내로써 기다린다.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온 시간 속에서 형성된 경험적인 자기상에 대한 집착을 완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재창조된 지위와 특권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경험과 초월의 틈새공간은 삶의 주제들(성취, 관계, 힘, 자율, 실존적 자각, 정체감, 자존감 등)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하여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만들어 진다. 예컨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 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삶의 무상함과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살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궁극적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서 말미암는가? 구원은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며,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구원은 삶의 어느 구석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구원은 나에게 무엇에 대한 해답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서 바라보는 이해지평을 열어준다. 또한 이 질문들은 초월으로의 신호로써 작용하는 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인간의 영적 필요를 반영하며 동시에 전인성(human wholeness)의 차원에서 구원이 해석되는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신앙의 관점에서 삶의 내용을 물으며, 삶의 관점에서 신앙의 효력을 묻는 것으로 요약된다.

#### 4. 기독교적 인생 이야기

##### 1) 신앙과 인생 이야기

기독교적 인생이야기는 영적 삶, 곧 신앙적 삶의 의미가 파악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목표로 하시며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표로 하는 이야기이다. 신앙적 삶의 이야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삶의 저작권(authorship: “누가 나의 인생 이야기를 쓰는가?”)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이야기라는 점에 있다.<sup>22)</sup>

##### 2) 성경의 구속이야기와의 교차

기독교적 인생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의 관점에서 삶의 방향과 주체가 복음적으로 전환된 이야기이다. 이 점에서 성경 이야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와 교차한다.<sup>23)</sup>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작가가 되어 쓰시는 구속 이야기 속에서 자기는 주체(Subjekt)가 아닌,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의 대상이 되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곧 자기에게서 벗어나 거리를 두는 자기객관화 및 자기초월의 첫걸음이 된다.<sup>24)</sup>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이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알리시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역사 속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을 증류해 낸다면, 아마도 명제 형태의 세계관이나 진리, 또는 신학적 주제들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류된 성경적 명제나 개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교정 렌즈로 작용한다. 이 점에서 성경 이야기들은 인

생이야기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전형(본)이 된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첫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야기는 고통의 이야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고통당하는 자의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한 가운데 있다면, 고통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듯이, 이야기의 초점은 고통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 오히려 고통을 당할 때 저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헤아리면서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시 119:71)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준다. 둘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야기는 통제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스스로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앞일을 예측할 수 있으며 준비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이러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를 바라며 자기 뜻대로 인생을 통제하고자 한다. 만약 타인의 통제 하에 자기 인생이 맡겨진다면, 인생은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는 의존적 삶이 될 것이며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이 타자, 곧 하나님의 통제 하에 맡기어져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삶에 순복해나가는 즐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신다. 셋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야기는 정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풀어내고 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 길을 선택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선택을 간과치 않으시고 그 결과까지 보여주신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가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넷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이야기는 늘 우상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적 투쟁의 핵심 주제가 된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배를 채우려는 우상 숭배의

곤궁한 삶에서 돌이켜 영원히 막마르지 아니 할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게 만드시는 이야기이다. 다섯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앞에서 인간이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야기는 영원(eternity)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방향과 목적지가 있으며, 이 끝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취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집념의 이야기이다.

### 3) 치유 효과

자기에 대한 심리학적 이야기가 영혼의 구속적인 이야기로 재구성될 때, 한 개인의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구조 속으로 편입된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해의 지평은 확장된다. 또한 구속의 관점에서 해석된 인생이야기를 통하여 구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적용되었는지 이해하고 상기하게 된다.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자신의 구속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 위에 견고히 서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본으로 작용한다.

하나님께 저작권을 돌려드린 기독교적 인생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준다. 이러한 시각은 인생길을 순례의 길로 각오하는 결단을 이끌어 낸다. 이 순례의 결단 속에서 자신이 부여한 의미들은 상대적이고 잠정적이 되는 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에 대해 자신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열린 구조로 삶을 바라볼 때, 미완성(Fragment)으로서의 삶을 감내하며, 완성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삶을 소망하게 된다. 순례를 향한 결단이 주는 힘에 대하여 시편 84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Blessed are those who have set their hearts on pil-

grimage-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5-7절)

### III. 닫는 글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할 새로운 인생이야기로서 하나님의 구속이야기에 통합된 이야기의 특성 및 해석과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기독교적 인생이야기가 재구성되기까지 한 개인의 인생이야기는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를 거쳐 어떻게 교정 보수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심리학적 해석의 우회를 거치면서 자칫 범하기 쉬운 심리학화의 위험성,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루가 되는 신학으로 성령론에 기초한 인간론을 대략 스케치해 보았다. 오직 성경적 계시에 기초한 신학적 기초 위에 든든히 설 때, 심리학적 해석의 막힌 담을 넘어 기독교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음을 함축적으로 강조하였다. 다만, 신학적 기초 위에 선 은혜의 심리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인생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인 사례로 다루지 못하여 아쉽다. 실제 한 개인의 인생이야기를 인지치료적, 정신분석적, 인본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sup>26)</sup>, 각 이론에 따라 재구성된 이야기 속에서 한 개인의 인생의 막힌 담이 어떻게 달리 탐색되어지며, 그에 따라 복음제시의 접촉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 김수연. “기독교상담에서의 공감과 직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논문집. 「복음과 상담」. 제4권(2005, 5): 132-54.
- 김수연.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막힌 담, 그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논문집. 「복음과 상담」. 제1권(2003, 11): 143-68.
- 박경애. 『인지 정서 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2002.
- Corey, Gerald.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조현재, 조현춘 공역.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 Drehse, Volker. “Lebensgeschichtliche Frömmigkeit: Eine Problemskizze zu christlich-Religiösen Dimensionen des autobiographischen Interesses in der Neuzeit,” W. Sparr, (ed.). in *Wer schreibt meine Lebensgeschichte: Biographie, Autobiographie, Hagiographie und ihre Entstehungs-zusammenhänge*. Gütersloh: Gütersloh Verl, 1990.
- Erikson, Erick H.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1985.
- Gergen, Kenneth J. “If Persons Are Texts,” Stanley B. Messer (eds.) *Hermeneutics and Psychological Theory: Interpretive Perspectives on Personality, Psychotherapy, and Psychopathology*. London: Rutgers University, 1988.
- Gerkin, Charles V.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안석모 역, 『살아있는 인간문서』.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 Lester, Andrew D.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신현복 역. 『희망의 목회상담』.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Louw, Daniël J. *A Mature Faith*. Louvain: Peeters, 1999.
- Luther, Henning “Leben als Fragment: Der Mythos von der Ganzheit,” *Wege zum Menschen*, 43(1991): 262-73.
- Meissner, William W. *Life and Faith: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Religious Experience*.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1987.
- Mertens, Wolfgang.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tische Therapie*. Stuttgart: Kohlhammer, 1990.
- McWilliams, Nancy, *Psychoanalytic Case Formulation*. 권석만, 김윤희, 한수정, 김향숙, 김지영 공역. 『정신분석적 사례이해』. 서울: 학지사, 2005.
- Robinson, John A. & Linda Hawpe. “Narrative Thinking as a Heuristic Process,”

- Theodore. R. Sarbin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1986.
- Rogers, Carl. R. *On Becoming a Person*. London: Constable, 1988.
- Sarbin, Theodore R. "Introduction and Overview." Theodore. R. Sarbin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1986.
- Young, Jeffrey E. *Schema Therapy*. 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주리아. 유성진. 김지영 공역.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2005.

---

[ 후주 ]

- 1) Kenneth J. Gergen, "If Persons Are Texts," Stanley B. Messer. (eds.) *Hermeneutics and Psychological Theory: Interpretive Perspectives on Personality, Psychotherapy, and Psychopathology* (London: Rutgers University, 1988): 28-51. 이 논문에서 Gergen은 인간이해를 '텍스트 해석'으로 보는 관점에는 관계성의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shift from an emphasis on the text and its reader to more extended pattern of interdependence"를 강조하며, 해석의 과정을 차라리 상호 관계성이 강조된 춤이나 게임이란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Henning Luther, "Leben als Fragment: Der Mythos von der Ganzheit," *Wege zum Menschen*, 43(1991): 262-73. Martin Luther는 이 논문에서 인생의 본질에 뿌리박고 있는 파편화를 감내하며 온전성에 대한 신화를 벗는 것은 곧 자기폐쇄를 극복하고 미래의 가능성에 자기를 열고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 3) Theodore R. Sarbin, "Introduction and Overview." Th. R. Sarbin,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1986): ix-xviii.
- 4) 김수연, "기독교상담에서의 공감과 직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논문집, 「복음과 상담」 제4권(2005, 5), 132-54.
- 5) Charles V.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안석모 역, 『살아있는 인간문서』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41.
- 6)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67.
- 7)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87.
- 8) 심리학의 이론적 전통 가운데 인지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반성하는 인간에 대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전제가 시사하는 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주관적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은 학자들만의 전유

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은 자신의 학습이론에 따라서 공부하며, 양육이론에 따라서 자식을 키우며, 대인관계이론에 입각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심리학자들로는 George. A. Kelly는 Personal Construct Theory를 Nobert Groeben은 Reflexives Subjekt에 대한 심리학으로써 Subjektive Theorie 연구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 9) John A. Robinson, Linda Hawpe, "Narrative Thinking as a Heuristic Process," Th. R. Sarbin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1986), 111-25.
- 10) 박경애, 『인지 정서 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2002), 197-225.
- 11) Jeffrey E. Young, *Schema Therapy*, 권석만 외 5인 공역,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2005), 29-34.
- 12) Andrew D. Lester,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신현복 역, 『희망의 목회상담』(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59.
- 13) 김수연,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막힌 담, 그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논문집, 「복음과 상담」 제1권(2003, 11): 143-68.
- 14) Nancy McWilliams, *Psychoanalytic Case Formulation*, 권석만 외 4인 공역, 『정신분석적 사례이해』 (서울: 학지사, 2005), 54.
- 15) Erik. H.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1985), 32-82.
- 16) Wolfgang Mertens,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tische Therapie* (Stuttgart: Kohlhammer, 1990), 130-37.
- 17) Carl R. Rogers, *On Becoming a Person* (London: Constable, 1988), 107-14.
- 18) Daniël J. Louw, *A Mature Faith* (Louvain: Peeters, 1999), 40-122.
- 19) William. W. Meissner, *Life and Faith: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Religious Experience*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1987), 61-84.
- 20) Louw, *A Mature Faith*, 107-13.
- 21)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194.
- 22) Volker Drehse, "Lebensgeschichtliche Frömmigkeit: Eine Problemskizze zu christlich-religiösen Dimensionen des autobiographischen Interesses in der Neuzeit," W. Sparn, (ed.), *Wer schreibt meine Lebensgeschichte: Biographie, Autobiographie, Hagiographie und ihre Entstehungs- zusammenhänge* (Gütersloh: Gütersloh Verlag, 1990), 14.
- 23) Paul D. Tripp, *Lost in the Middle: Midlife and the Grace of God* (Wapwallopen: Shepherd, 2004), 14-23.
- 24) Henning Luther, *Religion und Alltag: Bausteine zu einer Praktischen Theologie des Subjekts* (Stuttgart: Radius-Verl, 1992), 34-57.
- 25) Tripp, *Lost in the Middle: Midlife and the Grace of God*, 173-75.
- 26) Gerald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조현춘, 조현재 공역,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366-69.

【 Abstract 】

## Interpreting Life Story for Christian Counseling

Kim Soo You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ing is discussed in terms of interpreting life story. The life story told by counselee is viewed as the strategic position of transformation. The subjective theories embodied in the counselee's life story are to be corrected by hermeneutic arch of psychological theories. The arch of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is suggested to provide the tangential point of evangelisation. At the same time the peril of psychological reductionism is referred to be prevented by the theological equipments such as pneumatological anthropology. The reconstruction of life story as one embedded in God's redemptive story is emphasized as a crucial test for christian counseling. The redemptive life story is characterized by its biblical themes and plots.

**Key words:** subjective theory, hermeneutic arch of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reductionism, theological anthropology, God's redemptive story